



니콜라스 펠처 Nicolas Pelzer

석기시대의 도구부터 지금의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진화를 재료 삼아 실재와 허구의 경계, 현실의 본질을 추적하는 작업을 해왔다. 최근 SeMA 벙커에서 열린 그룹전 <너머의 여정>에서도 디지털 시대가 소비하는 물질주의적 환영에 대한 비디오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일상에서 가장 집중해서 하는 일과가 있다면? 로봇청소기가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 아침식사를 마치는 것.

당신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독수리의 시야를 가진 호기심 많은 개.

만약 본인의 성격이나 모습 중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점을 바꾸겠나? 자기중심적인 성격.

가장 손에 익은 도구는 무엇인가? 물론 컴퓨터. 대부분의 작업이 컴퓨터를 켜면서 시작된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해 얘기해준다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향수에 젖기보단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가장 큰 사치라고 할 만한 소지품 혹은 어떤 사건을 말해준다면? 예술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스러운 일이다.

가장 과대평가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예술의 쾌락주의.

최근 특별히 더 몰두하는 주제 혹은 작품의 방식에 대해 말해준다면? 사물들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추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상성에 관심이 있다. 요즘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물체들, 이를테면 이쑤시개 같은 것들을 3D 스캔하는 중이다. 추후에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3D로 프린트할 생각이다.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회의 거울. 개인적인 흥미에서 벗어나 내면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는 게 예술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술은 명백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동적이고 급변한다는 것. 그 지점이 예술을 특별하게 만든다.